

조선사록 역주 2, 장영, 『보안당정정방주선생봉사록』(이하 “봉사록”)

(참고문헌: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 송·명·청 시대 조선 사행록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아래 page 번호는 참고문헌의 내용)

I. 장영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난 문학지사로서 당대에 이미 명성이 높았으나, 성격이 강직하고 거리낌 없이 간쟁(諫爭)하여 외직으로 방출되었다고 함. (pp. 170-1)

“경사스럽게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 즉시 시를 지어 읊었는데, 아름다운 구슬이 찬란하게 빛나며 비단 주머니에 넘쳐 거의 한 권의 책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최항의 황화집 서문)

II. 조선 초기의 대 여진 정책 –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명과의 경쟁관계, 회유책과 정벌의 반복

1. 태조 – 건국 전부터 여진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진족들에게 벼슬을 주는 등 회유책을 펼침.
2. 태종 – 명은 건주위, 모련위 등의 위소를 설치하고 여진족 부족의 추장들을 그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이 여진족과의 무역을 일시적으로 단절하자 올적합 등이 두차례 경원을 침공하고, 조선은 모련위를 정벌함으로써 대응.
3. 세종 – 두차례에 걸친 파저강 정벌을 통해 압록강 건너의 여진족 세력을 약화시켰으나, 이만주 제거에는 실패. 이만주는 여진부족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명과 친분이 강해 지속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됨.
4. 세조
 - 1459년 세조 5년 신숙주를 함길도로 파견하여 여진족 세력들간의 화해를 주도하고 있었으나, 두만강 북쪽에 거점을 두고 있던 낭발아한만이 아프다는 평계로 오지 않았으며, 그 부족 사람들이 낭발아한을 부르러 간 통사를 쏘려고 하는 사태 발생. 당시 낭발아한은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과 사이가 나빴고, 조선 군사들이 자신들의 땅을

염탐하자, 조선이 자신들을 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주변 부족들에 전하여 민심을 혼란시킴. 처음에는 세조가 유화책을 펼쳤고, 낭발아한도 해명을 함으로써 무마되는 듯 했으나, 그 아들인 낭이승가가 몰래 중국에 가려고 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세조는 낭발아한 부자 및 친족들을 참수. → 천순 4년 봄 (세조 6년) 천순사절단 파견 계기

- 살아서 도망친 다른 아들인 아비거가 군사를 모아 조선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전사했는데, 조선은 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모련위 정벌을 추진하여 여진족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음. 그 이후에도 야인들의 국경 침입이 계속되자 재정벌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두만강 하류의 모련위와 압록강 중류의 건주위가 연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때를 기다림. 세조의 궁극적인 정벌 목표는 이만주가 이끄는 건주위였음.
- 명이 여진족과의 교역량을 크게 줄이자 여진족들은 조선보다 명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기 시작. 1467년 세조 13년 올량합 부족 천여명이 의주를 공격하여 약탈하자, 세조는 중국을 능멸하고 조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공격. 명도 건주위를 응징하고 여진족들에 대한 지배를 재확립하기 위해 조선에 건주위의 퇴로를 함께 막아줄 것을 요청.

III. “봉사록”

1. 명의의 차례를 정해 주기를 청하는 제본

- 함께 사신으로 가는 무충(武忠)은 무관직 3품이었으나 부사로, 문관직 7품인 장영이 정사로 파견되는 것에 대해 황제의 공식적인 재결을 청하는 목적. → 사신 임명에 능력, 특히 문학적 능력을 중시했음을 보여줌. (“근시관 가운데서도 귀인임을 고려하여” 조선국왕에게 내리는 칙유에도 꼭 명시하도록 함)
 - “이유(李豫)가 책을 읽는다는데, 혹시나 전고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으면, 이는 무충이 답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네가 앉을 자리의 차례는 윗자리에 있다.”
 - 장영은 예겸에 이어 두번째로 문학지사 출신의 사신으로 환관을 사신으로 임명하던 오랜 관례를 깨고 文學志士 출신을 사신으로 임명하는 전례를 굳혀가는 과정을 보여줌.
 - 금실로 짠 옷 한벌 하사.

2. 요동에서 다시 상주하는 제본

- 모련위부 도지휘 상동가 등이 원수를 갚으러 조선으로 간다는 소문.
 - 모련위: 여진의 제부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는 명의 일개 위소의 하나였으나 실제로는 여진의 고유한 질서에 의해 자치가 이뤄지고 있었음.
 - 도지휘: 위소의 장관의 명칭으로, 모련위 도지휘는 실제로는 여진 추장.
- 요동의 불안정한 상황을 알려주며,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파악한 뒤 결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상황이 안정되고 조용해지면 여정을 계속하라는 황제의 칙서에 대한 답변.
- 정예 기마부대 관군 2천명에 호위를 맡겼으며 먼저 사람들을 보내 탐색해서 사정을 보면서 조선과의 접경지역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보고.

3. 조선 의주에서 돌려보내는 호송 관병에게 알리는 방문

- 국경을 넘어 조선 땅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온 호위병들에게 행동거지를 바르게 할 것을 당부하는 글.

4. 조선국에서 돌아와 복명하는 제본

- 귀국 보고서로, 여진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선 측의 대응 태도를 정리, 보고.
- 사절단의 본연의 임무 - 자순 (諮詢, 두루 물어서 살핌)
- 천순사절단의 주임무 -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절하여 요동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
 - 경태사절단의 관행을 유지
 - ✓ 동일한 여정
 - ✓ 세자의 교영례(郊迎禮)와 여악(女樂)에 관한 예론도 반복 → 명과 조선의 책봉-조공관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명조의 입장 반영 (pp. 204-5)

- ◆ 장영의 봉사록에는 산문 기행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예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천순 사절달이 용천점에 이르렀을 때 장영은 조선의 의주(儀注)가 아니라 홍무 27년에 정한 의주(儀注)에 따라 칙서를 맞이하는 의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세자도 국왕과 함께 교영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림. 이에 조선측에서는 세자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자 장영은 세자가 아프면 억지로 나오게 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서 줌.

- ✓ 문학지사의 파견 → 조선 명사들과 간주하면서 창화 외교를 계승
 - “이유가 영접하면서 갖춘 예의는 번국의 도리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칙서를 열어 읽을 때는 끓어 엎드려 전전긍긍하였습니다. [……] ‘신은 이로 인해 다만 본국에서 어지러움을 일으킨 사람을 법에 따라 조처하고 다스렸음을 알 뿐, 일찍이 조정에서 관직을 받았는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 어찌 감히 분수를 넘어 법을 어기겠습니까.’ [……] 신 등은 통사와 서반을 대동해 갔지만 언어가 잘못되어 어그러질까 걱정되어, 당연히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글을 써서 이유와 문답했는데, 앞뒤가 서로 맞아 실제 사정이 틀림이 없고 거짓 꾸민 것도 없었습니다.”
 - 조선측의 설명 (세조실록 6년 발췌 내용들, pp. 184 – 7, pp. 195-6)
 - ✓ 명 태종 영락제와 영종의 <야인의 일을 처치하는 데 대한 칙서>를 요약해서 장영에게 제공 - 조선의 변방에 살고 있는 백정들로 반락한 혼적이 분명한 도적들이고 일이 급해서 명 황제에게 상의할 겨를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예전에도 수시로 변란에 대응한 전례가 있으며, 기회를 보다가 처치하라는 천자의 성지도 있었다고 변명.
 - ✓ 천순 4년 8월 19일 조선의 주문사(奏聞使) 윤자운과 윤길생이 명에 가서 전달한 주본(奏本) - 명과 조선은 여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명의 여진 정책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함에 따라 조선도 일정 부분 협조하여 여진에 대한 정책의 조화를 꾀함. (pp. 195-6)
 - ◆ 홍무(洪武) 5년 - “우리는 여진이 너희 지방 동북쪽에 살기를 허락했는데, 저들이 예부터 호걸(豪傑)스러워 그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 마음을 다하여 방어하라.”

- ◆ 영락(永樂) 8년 - “을량합(兀良哈) 저들은 진실로 무례하여 우리 쪽에서 요동의 군마를 조발(調發)하여 가겠으니, 너희 쪽에서도 군마를 조발하여 와서, 저들을 양쪽에서 죽여야 좋을 것이다. 빼앗아 간 물건은 숫자대로 다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리 알라.”
 - ◆ 선덕(宣德) 8년 - “저들이 혹시라도 뉘우치지 않거든 왕은 마땅히 기미(機微)를 사려서 처치하여 소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홍무와 영락 연간에 칙유(勅諭)한 사리(事理)에 따라 그대로 준수하여 방어하되, 유비무환하기를 바란다.”
 - ◆ 정통(正統) 원년 - “이들 도둑들은 금수의 성질이니 덕으로 교화할 수 없는 자들이다. 모름지기 위엄으로 무섭게 해야 한다. 칙지(勅旨)가 이르거든 왕은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변방의 백성들을 편안함을 얻게 하라.”
- 책봉-조공 관계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의 핵심으로, 중국이 아닌 주변국간의 책봉-조공관계나 전쟁과 병합 등은 용인하지 않음.
 → 조선이 여진과 책봉-조공 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스스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것은 명에 대한 도전으로 충돌이 불가피.
- ✓ 천순사절단의 귀국 후 조선의 주문사(奏聞使)인 이홍덕이 가져온 명의 칙서(勅書) - “낭발아한이 도독첨사가 되었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 준 직함이다. 비록 모반하여 변방의 걱정거리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를 죽였으니, 이는 왕이 스스로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 …] 왕은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그들과 강화한다면, 변경의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pp. 187-8)
- ✓ 건주도독 등이 요동 총병관에게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군사를 빌려 조선에 보복하려 한다고 하자, 요동 총병관은 “낭발아한이 조선의 경내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너희들에게 칙유하여 군사를 움직여 일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장차 대병을 발하여 조선의 군마와 합하여 협공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고 꾸짖음. (p. 188)
- 북경에서 압록강까지 이르는 여정(풍윤 → 영평 → 무녕 → 계주 → 난하 → 유관 → 노봉역 → 산해관 → 삼해관 → 전둔위 → 사하역 → 영원 → 송산 → 능하역 → 광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한 사행시들.

- 송산에서 묵으며 만난 맹옥 천호의 이야기 (일곱살에 관리가 되어 지금은 일흔 살. [...] 당시에 왜구가 요양을 침략하여 [...])
- 사냥개와 관련하여 개 기르기에 관한 노래(축견사)
- 장영의 천순사절단을 계기로 조선의 새로운 조공로의 개통과 (“동풀참 구로는 풀과 수목이 무성하여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데, 만약 이 도적이 몰래 이 땅에 와서 엿보다가 출몰하게 되면, 길이 막혀서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 자유채의 길을 개통하여 왕래를 편하게 해주시면 심히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조선 자제들의 국자감 입학을 요구 (p. 194)

IV. 황화집 (“봉사록” 하권)

1. “우리나라는 비록 바다 바깥의 외진 곳에 있지만 예를 지키며 옛 세대부터 은혜와 대우를 받아왔으니, 밝은 조칙을 반포할 때마다 반드시 조정 안에서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이를 골라 보내어 유학을 학습한 훌륭한 사인이 앞뒤를 이었다. 지금 공이 온 것으로 보아, 황제의 간택을 특별히 받아서 그 뜻을 삼가 받들었음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된다.” (최항의 서문)
 2. 기자라는 매개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 (p. 180) - “도통을 중시하여, 기자를 찾아 뵙고 교화의 근원을 숭앙하고, 선니를 배알함으로써 솔선하여 예를 지켜 허물없이 모범을 두루 행하여 보여주었다.” (최항의 서문)
 3. 「태평관 누각에 올라, 60운」 - 조선이 중국과 동질적 문화를 향유하고 번성하고 있음을 칭송함으로써 명과 조선의 책봉-조공관계를 확인하고 과시 (p. 180)
- “서쪽으로 장안보니 뜻이 벌써 통하였다. 하늘 땅에 은혜 있어 함께 덮고 실어주니, 화이 중에 조종하지 않는 곳 없다. [...] 교화가 담장 바깥 구복까지 행해져서, 사람들이 삼왕의 예악 가운데 있게 되었다. [...]”
 - 닦 울고 개 짖는 인가가 사방 들녘으로 뻗쳐지고, 봄기운, 매화 향기, 복숭아 자두에서 벌들이 꿀을 따고, 기쁨이 넘치는 길거리에 채색 베를 둑어 둔다, 아름다움 지경에서 공교롭게 서로 만나, 극진한 정취가 때가 다 되어 한껏 무르익는다, 시가를 다 만들어 외로운 마음이 상쾌해지나[...]

-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이 비록 달라도 마음과 눈이 모두 다 닿아, 그 사이 사이에 슬피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 남겨지고 이어졌다. 대개 옛 일을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고 풍속을 살피고 조사하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나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흥을 일으켜 문장을 만들면 정사가 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4. 「한강의 누각에 올라, 10수」 - “춤추는 소매에 술 향기 일어나고, 비단 옷 속으로 봄기운이 들어온다. [...] 어진 왕이 빙객을 좋아하고, 여러 재상들이 풍류를 이끈다. [...] <[...] 주연이 무르익자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해서 우연히 10장을 이루었지만, 거칠고 엉성하며 촌스러워 볼만한 것이 없어, 장독 덮개로 써도 괜찮다고 하면서 함께 한바탕 웃었다.>”